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일터서는 곳은 정말로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침실을 비롯한 모든 요소요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시공하며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오락실도 특색있게 꾸려주고 보육원, 교양원들의 생활실은 물론 후생시설들도 잘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은 탁아소, 유치원생들인것만큼 책상과 결상, 침대를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가구와 비품, 집기류들을 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주변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공원을 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지시하



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건설을 맡겼으므로 건축물의 질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려는것은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이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위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함으로써 당중앙의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가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

는 모든것은 세계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건설하

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건설자들이 한창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앙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의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고 시험발사명령

을 주시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전술유도탄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전술유도무기의 과학기술적성능이 한 단치의 편차도 없다는

것이 실증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초정밀화할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이 당과 인민의 기대를 잊지 말고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정확한 선제타격에 의한 주도권을 확고히 쟁취할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제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가 2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세기와 년대들이어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피맺힌 한을 남긴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안고 모여온 10만여명의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대회는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차회될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은 64년전 이 땅우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들쳐온 미제와 남조선피괴배당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현대적무기로 장비된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남조선피괴군,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동원하여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미제는 결코 굴복시킬수 없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러운 참패에서 웅대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는 오늘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흉심밑에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제재와 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으며 남조선피괴들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점경으로 몰아가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백년숙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연설자는 모두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천정만경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하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경애하는 원수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백

방으로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끝없이 심화시켜나갈것이다.

김정일에 국주의 로심장을 불태우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배당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다지고 다져온 선군의 위력과 쌓이고 쌓인 분노를 활화산처럼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 김혁남,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동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화숙,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홍강민이 연설하였다.

대회는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

로 받아내자!》, 《미제살인귀를 천백배로 복수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띄워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힘찬 취주악에 맞추어 광장을 누버나갔다.

본사기자

